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창조와 진화를 통해 살펴본 섭리 이해

J. Moltmann's Understanding of Providence in Light of His Doctrine of Creation and Theory of Evolution

이 신 열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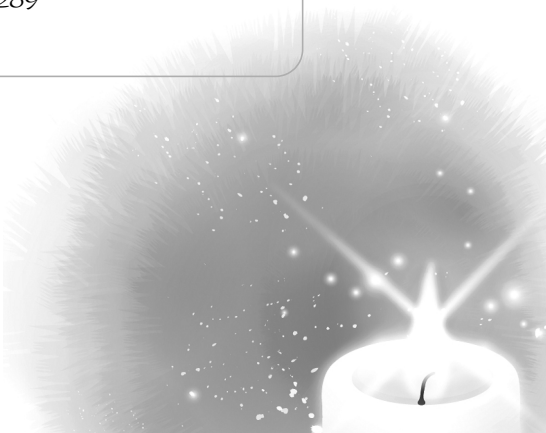
I. 들어가는 말 | 263

II. 창조이해를 위한 몰트만의 기독론과 성령론 | 264

III. 몰트만의 창조론 | 272

IV. 몰트만의 섭리 이해 | 281

V. 맺는 말: 개혁신학적 비판 | 289



요약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창조와 진화를 통해 살펴본 섭리 이해

본 논문은 독일의 현대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Jürgen Moltmann)의 창조론을 그가 수용하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그의 신학적 사고에 나타난 창조와 진화의 관계를 고찰한다. 먼저 그의 창조론에 나타난 특징은 무로부터 창조 (creatio ex nihilo)를 유대교 신비주의에 해당하는 카발라주의에서 빌어오는 침춤 (zimzum)의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하는데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그의 창조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 사고로 작용한다. 창조에 대한 삼위일체적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부어지심 (being poured out)라는 개념을 내세우는데 성자의 발생 (generation)과 창조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간주하는 비성경적 사고를 견지한다. 진화와 관련하여 창조는 변화적 창조 (creatio mutabilis)로 정의되는데 이를 통해 진화론에 대하여 상당히 개방적인 그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진화론에 대한 이러한 개방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은 선택적 도태를 포함한 진화론의 이데올로기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한다. 섭리에 대한 그의 견해는 창조에 의해 종속되는데 이는 그의 창조론이 무로부터 창조뿐 아니라 계속적 창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사고에서 비롯된다. 그는 섭리를 자연세계의 지속적 보존의 차원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롭고 혁신적인 발전까지 포함시키는데 이에 대한 궁극적 이유는 그의 창조론이 미래를 향한 열린 창조의 개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몰트만은 섭리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여기에서 '통치'(governance)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행하는 생태학적 차원의 돌봄과 관리로 새롭게 정의한다. 그러나 몰트만의 생태학적 이해에 나타난 섭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강조보다는 오히려 환경과 더불어 공존하려는 인간의 지혜와 이에 상응하는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요약

J. Moltmann's Understanding of Providence in Light of His Doctrine of Creation and Theory of Evolution

주요어

위르겐 몰트만, 성령론적 창조론, 섭리론, 진화론, 생태학적 창조론

Abstract

J. Moltmann' s Understanding of Providence in Light of His Doctrine of Creation and Theory of Evolution

Prof. Dr. Samuel-Y. Lee

The aim of this essay focuses to articulat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creation and providence in the thought of J. Moltmann while focusing on his understanding of evolu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his view on creation can be found in his attempt to understand creation from nothing (creatio ex nihilo) in terms of zimzum as it was derived from the Jewish mystical thought known as 'kabalah'. The self-limitation of God is the essential concept behind the idea of zimzum which brought creation into existence. In his attempt to articulate the doctrine of creation in trinitarian language, the concept of the Holy Spirit 'being poured out'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It is portrayed as something between the generation of the Son and creation.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is idea cannot be supported by sound biblical understanding. With regards to evolution, creation is defined as mutable creation (creatio mutabilis). This definition reveals Moltmann's attitude open to evolutionary theory in general. Although he seems to be accepting the basic tenets of evolutionary theory, he expresses his critique

on ideologizing of this theory including natural selection. Moltmann's understanding of providence is basically subjected to his doctrine of creation. This subjection seems to be originated from his broad definition of creation including creatio ex nihilo as well as creatio continua. Furthermore, the content of providence is expected to embrace a new and revolutionary idea of development toward future. This expansion is directly related to his concept of creation being open to future. Lastly, his understanding of providence is extended toward an ecological perspective. This idea might be esteemed as Moltmann's innovative contribution to broaden our horizon for understanding of providence. The concept of 'governance' plays a decisive role here. In fact, in his thought, the governance of God is relegated to human administration and caring in ecological terms. Yet his ecological understanding of providence seems to have tendency to replace divine governance with human wisdom to coexist with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ies corresponding to it.

Keywords | J. Moltmann, pneumatological doctrine of creation, doctrine of providence, theory of evolution, ecological doctrine of creation

I. 들어가는 말

위르겐 몰트만 (1926-)은 독일의 신학자로서 특히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Wolfhart Pannenberg, 1928-)과 더불어 종말론을 새롭게 부흥시킨 널리 알려진 세계적 신학자로 평가된다. 그는『희망의 신학』(1964)과『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1972)이라는 저서들을 통해서 종말론과 그리스도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1] 또한『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1980)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더욱 총체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2] 여기에 나타난 삼위일체론은 그의 신학의 집대성을 보여주는데 특히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가 피조세계의 역사를 통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삼위일체론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몰트만으로 하여금 창조론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에 이르렀다.『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1989)에서 그는 자신의 창조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창조가 피조세계를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피조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

---

1) 위르겐 몰트만,『희망의 신학』, 전경연 · 박봉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J. 몰트만,『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기독교 신학의 근거와 비판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 김균진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2) Jü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he Doctrine of God*,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1993).

3) 위르겐 몰트만,『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김균진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본 논문은 이 저서를 중심으로 몰트만의 창조론을 살펴보되 진화론이 어떻게 그의 창조론에서 이해되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창조와 관련된 섭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몰트만의 창조에 대한 이해를 드높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여 그의 신학을 더욱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4]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직접적 고찰에 앞서서 먼저 그의 기독론과 성령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에 그의 창조론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봄에 있어서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몰트만의 섭리 이해를 고찰함과 아울러 창조와 진화의 관계성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섭리론을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Ⅱ. 창조이해를 위한 몰트만의 기독론과 성령론

1) 우주적 그리스도

4) 몰트만은 판넨베르크와는 달리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한 조직신학을 저술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지닌 현실적 이슈에 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의 다양한 이슈들을 진단하고 이를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적응성과 적실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체계적 조직신학의 결여는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의 총체적 차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점 또한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그의 섭리론을 창조와 진화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서 이런 결점을 밝히고 그의 신학에 나타난 조직적 또는 체계적 차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의 신학에 대한 입문적 평가서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리처드 버캠, 『몰트만의 신학: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의 신학여정』, 김도훈 · 김정형 공역 (서울: 크리스챤헤럴드, 2008).

몰트만은 1989년에 발간된『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창조와 관련된 그리스도를 우주의 머리로 파악하여 '우주적 그리스도'로 묘사한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재자인데 그는 지혜 (잠 8:22-31)와 동일시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이 창조자이심을 나타내신다.[5] 그는 이런 차원에서 우주적 그리스도에 창조의 근거로서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6]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생한 창조는 부활과 분리될 수 없는데 이는 몰트만이 창조를 단순히 태초의 창조 (creatio originalis) 만으로 국한시키지 않음을 보여준다.[7]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존재의 근거에 해당하며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8] 여기에서 화해란 그가 우주의 힘들과 법칙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을 뜻한다.[9] 이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가 곧 화해의 통치와 동일한 내용을 지닌 것을 보여준다.

몰트만은 이러한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바르트가 주장하는 우주 속에 아직 은폐된 채로 머무르는 만유의 통치자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았다.[10] 바르트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숨어계심으로부터 나타남으로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고 간주하고 이를 더 이상 자신의 신학적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몰트만은 바르트와는 달리 이러한 우주적 통치가 더 이상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적대관계와 폭력을 극복하고 화해와 행복한 삶을 확대"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11]

---

5) J. 몰트만,『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야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김균진 · 김명용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392, 394.
6) Ibid., 400.
7) Ibid., 393.
8) Ibid., 395.
9) Ibid., 389.
10) Ibid., 390;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V/3-2 (Zurich: Theologischer Verlag, 1952), 865f.
11) 몰트만,『예수 그리스도의 길』, 390-91.

이러한 화해의 개념은 통치로 해석될 뿐 아니라 만물의 유지로도 해석된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카오스의 위협에 대항하여 만물의 삶이 유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거라는 내용에 해당된다.12) 우주적 그리스도론의 주된 내용은 그의 창조를 원래적 의미의 창조로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우주적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거로서 통치와 보존을 주도하는 그리스도로도 이해된다. 그런데 이는 전통적 섭리론이 보존과 통치를 기독론과 상관없이 이해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13) 통치라는 섭리의 요소를 화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가 주장하는 화해는 구원론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우주적 차원에 관한 것이다. 창조의 근거로 이해된 그리스도는 일차적으로 우주적 차원의 화해에서 출발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불러일으킨다.14) 이런 이유에서 몰트만은 우주적 그리스도론은 구원과 관계되는 역사적 그리스도론과 대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론은 이 우주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15)

2) 진화의 구원자 그리스도

몰트만은 자신의 진화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떼이야르 드 샤르댕 (Teilhard de Chardin)의 진화자 그리스도 (Christus Evolutor)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16) 떼이야르의 진화론적

12) Ibid., 401.
1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15.3-4. 칼빈은 섭리를 하나님의 전능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헤르만 바빙크 (Herman Bavinck)도 이를 칼빈과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기독론적 고찰과 상관없이 다루고 있다. 『개혁교의학 2』, 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735ff.
14)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427.
15) Ibid., 389.

사고는 종말의 그리스도를 오메가 포인트 (omega point)로 이해하는데 그 핵심이 발견된다. 이 포인트는 만물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수렴점 또는 절정에 해당된다.[17] 몰트만은 떼이야르에게 진화의 완성은 하나님의 완성과 상응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전적으로 진보 개념과 범신론적 사상의 결합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밝힌다. 그런데 떼이야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진화론에 나타난 부정적 측면, 즉 도태 (selection)의 결과로 주어지는 희생과 죽음에 관한 것이다.[18] 이로 인해 떼이야르에게 몰트만이 주장하는 만물의 화해자 그리스도의 개념은 전혀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만다. 그가 주장하는 진화론의 그리스도는 결국 잔인하고 감정도 없는 도태자 그리스도 (Christus Selector)에 불과한 것이며 이 그리스도는 결코 우주를 화해시키거나 구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19]

이러한 떼이야르의 진화자 그리스도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몰트만은 진화론에 나타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비판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화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완성시키는 진화의 구원자 (Christus redemptor evolutionis)로 내세운다. 몰트만의 진화에 대한 비판은 먼저 진화와 구원의 상반적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는 무에서의 생성이며 진화는 이의 재배열 또는 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관련이 없다. 그러나 창조를 태초의 창조에 국한하지 아니하는 몰트만

---

16) Ibid, 408-14; 버캠, 『몰트만의 신학』, 322-27.

17) 스탠리 그렌츠 & 로저 올슨, 『20세기 신학』, 신재구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7), 213: "이 프랑스 사상가가 말하는 오메가의 개념이란 진화에 대한 전적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인류의 미래적 수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수렴점이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기독교적 주장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rthur Peacocke, *Creation and the World of Science: The Reshaping of Belief* (Oxford/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4), 338.

18)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411.

19) Ibid., 412-13.

사고의 특성상 이는 열려있는 창조,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과정이며 이런 이유에서 계속적 창조이며 변화적 창조 (creatio mutabilis)로 정의된다.[20] 창조와 진화의 공통점은 양자 모두 시간과 관계되며 열려진 개념이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 또한 양자는 시간에 종속적이며 비가역적 (irreversible)인 개념에 해당된다. 즉 몰트만에게 진화는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되는 비가역성을 지닌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21]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몰트만은 구원 또한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로서 미래에서 현재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오심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오심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가 다가오는 것과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것은 영생과 영원한 시간이다."[22]

구원과 진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후자의 그리스도는 되어감의 그리스도 (Christus im Werden)이며 전자의 그리스도는 오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Christus im Kommen)으로 정리된다.[23] 이런 관점에서 진화와 구원은 서로 역행하고 상반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몰트만은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화의 구원자이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3) 하나님의 현존으로서의 성령: 내재와 경험

몰트만은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에서 자신의 창조론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생태학적 창조론일 뿐 아니라 또한 삼위일체론적이며 성령론적 창조

---

20)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288, 303.
21) Ibid., 291.
22) Jürgen Moltmann, *The Coming of God: Christian Eschatology*,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1996), 23.
23)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423.

론에 해당된다.[24] 창조의 비밀이란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의 영을 통해서 피조세계 전체와 개적 피조물 안에 거하시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우주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은 이러한 그의 거하심을 떠나서 논의될 수 없다. 여기에 그가 주장하는 성령을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려는 의도가 발견된다. 즉 성령은 "하느님의 내재적 세계 현존"에 해당된다.[25] 기존의 창조론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단순히 하나님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역으로 간주했다면, 몰트만은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의 활동임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거하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역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18세기 웨팅어 (Fr. Oetinger)의 다음 주장을 인용한다: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통하여 우주 전체를 관통한다 (Deus penetrat praesentia sua totum universum).[26]

이러한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내재 또는 현존에 대한 주장이 범신론적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몰트만은 자신의 성령 이해가 범신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삼위일체론적 만유재신론 (panentheism)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다.[27] 일반적 의미에서의 만유재신론은 하나님이 자신과 피조세계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미래를 향한 초월과 진화에 있어서 목적성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내재와 초월을 서로 결합시키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몰트만은 자신의 만유재신론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정초된 개념으로서 피조세계에 대한 성령의 내재와 초월을 구분하고 양자를 결합 가능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 만유재신론이 지닌 결점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28]

---

24)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0: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이란 제목과 함께 나는 하느님을 성령으로 생각하였다."

25) Ibid., 157.

26) Ibid., 33.

27) Ibid., 159-60.

28) Ibid., 36-37.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의 근거로서 몰트만은 삼위의 상호

이러한 피조세계에 내재하는 성령에 대한 몰트만의 사고는 1991년에 발간된 『생명의 영』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 여기에는 총체적 성령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29] 그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전통적 그리스도 중심적 성령론이 성령을 단지 구원의 영으로만 파악하는데 머무르는 경향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기독교의 플라톤화'와 영지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30] 물론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 부인되지는 아니하지만 몰트만에게 구원의 영은 부활의 능력을 지닌 새 창조의 영이므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차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주적 차원에 관계하는 영이다.[31] 즉 그의 성령론은 사실상 앞서 언급된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성령은 이제 인간의 영혼과 육체, 사회, 정치,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1972)과 같은 초기 저서에서 나타났던 기독론적 양상이 점차 사라지고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이제 성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32]

그러나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행위 또는 활동으로만 이해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자신이 현존하는 현실로 이해된다. "야훼의 루아흐는 하나님의 활동하는 현존의 사건"으로 이해되며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 아니라 "창조와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현존의 양태"로 정의된다.[33] 이는 구체적으로

침투 (perichoresis)를 언급한다. John W. Cooper, *Panentheism: The Other God of the Philosopher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251-52. 쿠퍼는 몰트만이 이해한 하나님의 창조를 삼위일체론적 상호침투의 보편으로 해석한다.

29) J. 몰트만, 『생명의 영: 총체적 성령론』,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현요한, "몰트만의 성령론, "「조직신학논총」 12 (2005), 208-9, 214-17.

30) 몰트만, 『생명의 영』, 22ff.

31) Ibid., 36. 여기에서 몰트만은 "성령론은 그리스도론을 전제하며 종말론을 위한 길을 예비한다."라고 밝히는데 이 주장의 의미는 성령의 역할이 우주까지 포괄하는 공간적 차원뿐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에서 과거와 미래를 포괄하는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도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2) 버캠, 『몰트만의 신학』, 309.

하나님이 특수한 공간과 시간에 내려와서 거하시는 쉐히나 (shechina)로 표현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으로부터 구분되는 그의 지상적, 시간적, 공간적 현존으로 묘사된다.[34] 쉐히나, 즉 그의 현존은 피조세계로부터의 하나님의 자기 구분과 자기 동일화를 동시에 암시하는 것이다.[35]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표현되는 성령은 삼위일체론적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특히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파송되는 형식을 통해서 고찰된다.[36]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체적 성령론의 서술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험'이라는 개념인데 이것 또한 삼위일체론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37] 성령의 경험은 과거에 오셨고 활동하셨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그의 미래를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이 경험은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과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경험이며 이는 곧 하나님 경험에 해당된다.[38]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경험은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메시야적 기다림으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 즉

33) 몰트만, 『생명의 영』, 27.
34) Ibid., 74-75.
35) Ibid., 77.
36) Ibid., 88-107; 이정배, "메시야적 종말론과 진화론; 몰트만의 자연신학 연구, "「조직신학논총」 12 (2005), 131.
37) 몰트만은 이 저서에서 자신의 총체적 성령론을 '경험', '삶', 그리고 '사귐'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경험은 성령 자신의 하나님 경험이라는 차원으로 정의되는데 주로 삼위일체론적 고찰을 통해 전개된다. 또한 삶이라는 주제에서는 성령의 경험이 어떻게 구원과 관련된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가를 다룬다. 셋째로 사귐이라는 주제에서는 먼저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 자신 내의 사귐을 고찰한 후 사귐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다룬다. 비록 이 세 번째 주제에 포함되어 고찰되기는 하였지만 비로소 다양한 은유들을 사용해서 성령을 사귐을 통해 정의함으로서 이 책을 마무리한다. 여기에는 경험에서 출발하여 성령의 총체적 사역을 고찰한 후에 비로소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정의할 수 있다는 몰트만의 주관적 신념이 담겨져 있다.
38) 몰트만, 『생명의 영』, 35-36.

오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과 동일한 것이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되는 역사성의 차원을 지닌다. 그러나 성령의 경험이 메시야적 기다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우주적인 차원도 포괄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새 창조의 능력에 대한 기다림으로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성령의 선취적 예기를 통해 가능하다.[39]

Ⅲ. 몰트만의 창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몰트만의 성령론은 근본적으로 만유재신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창조론을 무로부터의 창조와 삼위일체론적 창조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에 근거해서 그가 주장하는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1)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

창조에 있어서 '무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몰트만은 이를 희미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de Deo)'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40] 이는 그가 세상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근거해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부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41] 즉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부터 창조하셨고 (creatio ex libertate Dei) 또한 사랑으로 창조하셨음 (creatio ex

39) Ibid., 80-84; 버캠, 『몰트만의 신학』, 263.
40)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19.
41) Jürgen Moltmann, *The Future of Creation: Collected Essays*,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2007), 120; 『과학과 지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61.

amore)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는 원래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가 플라톤적 유출설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시기로 스스로 태초에 결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42] 내적 강제성 또는 외적 필요성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요구하지 못한다.[43]

그렇다면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는가? 몰트만은 이에 대한 대답을 성경의 증거가 아닌 유대교의 침춤 (zimzum) 개념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자기 제한 (self-limitation)에서 찾는다.[44]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피조 세계 안에서, 곧 자신의 바깥에서 창조하신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바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나님은 무한 (infinite)하시고 무소부재 (omnipresent)하시므로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에게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침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앞서 자신의 현존을 축소하여 자신 속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여 무로부터의 창조 행위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무' (nihil)를 만드셨음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이 물러간 무로서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몰트만의 주장은 사실상 하나님의 편재 (omnipresence)를 부인하는

---

42)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54-55, 114. 이는 삼위일체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 (communication)에 의한 창조인데 이런 이유에서 몰트만은 창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작용이라는 견해로부터 거리를 유지한다. Alan J. Torrance, "Creatio ex nihilo and the Spatio-Temporal Dimens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Jürgen Moltmann and D. C. Williams, " in *The Doctrine of Creation: Essays in Dogmatics, History and Philosophy*, ed. Colin E. Gunton (Edinburgh: T & T Clark, 1997), 86, 각주 13. 토랜스는 몰트만이 창조를 하나님의 의지와 결별시키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의 과정으로만 인식하도록 만들므로 사실상 피조된 세계가 아닌 세계의 영원성 (aeternitas mundi) 교리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몰트만의 범신론을 올바로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3)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17.

44) Colin E. Gunton, *The Triune Creator: A Historical and Systematic Study* (Grand Rapids: Eerdmans, 1998), 141.

견해이므로 실제적으로 설득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45] 여기에서 무는 신적 수축에 의해 생긴 공간을 가리키는데 이는 신비적인 원초의 공간에 해당된다.

몰트만은 침춤과 관련된 무 이해에 나타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46] 첫째,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부정하신 공간이므로 버림받은 공간이며 지옥, 절대적 죽음을 가리킨다. 이 무로 인해 피조세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 무는 창조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힘이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힘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정성에 의해 제한받으셔야 한다.[47] 둘째, 이 공간을 통해 창조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단념하는 하는 자기 단념,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자기 비하의 하나님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낮추시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이 공간을 향해 창조적으로 활동하신다. 침춤을 통해 '바깥'이 형성되었으므로 비로소 무로부터의 창조가 가능해 진 것이다. 기존의 창조론이 단순하게 바깥을 향한 창조를 말한다면, 몰트만은 이 바깥을 향한 창조 행위가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한 내면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변증법적 (dialectical) 주장을 전개한다.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현실은 비록 하나님과는 구분되지만 또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된다.[48]

여기에서 몰트만의 만유재신론의 의미가 더욱 자세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피조세계 안에 현존하신다는 몰트만의 주장은 만유재신론적

---

45) Ibidem.

46)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37-40.

47) Cooper, *Panentheism*, 252. 유지라는 차원에서의 섭리와 창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IV. 몰트만의 섭리 이해"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48) Torrance, "Creatio ex nihilo and the Spatio-Temporal Dimensions, " 89.

함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실존하는 피조세계와 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피조세계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무에 의해 위협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집행하시는 미래를 향한 새 창조를 이끌어내신다. 이 점에 있어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종말론적 결론에 도달한다.[49] 이는 몰트만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무로부터 존재를 창조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새 창조를 희망한다."[50]

2) 삼위일체론적 창조

몰트만은『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1980)라는 저서에서 자신의 삼위일체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는『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삼위일체론의 창조론적 차원이 더욱 상세하게 설명되고 확장된다.[51]

먼저 하나님은 만유재신론적 관점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의되는데 이를 통해 삼위일체론적 창조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대상에게 내어주는 사랑인데 이 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대상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몰트만에게 창조는 하나님이 다른 대상을 영원히 원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열매를 가리키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창조한 대상으로부터 사랑이라는 반응을 함께 원하신다.[52]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창조

---

49) 이정배, "메시야적 종말론과 진화론, " 129.
50) 몰트만,『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45.
51)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105-14, 161-78; 몰트만,『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46-52.
52)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106.

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이에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만유재신론의 기본적 개념에 해당된다. 몰트만은 이러한 만유재신론적 사랑의 개념과 상응하고 동일시되는 삼위일체론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53]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로부터 사랑을 원하시는데 여기에서 전자의 사랑과 후자의 사랑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54] 이러한 사랑의 대상자인 성자는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부를 영원히 사랑한다.[55]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하는 사랑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과 동일시되지만 이 사실로 인해 성자가 세계로 바뀌지는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서 비롯되는 그의 교통 (communication)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자신과 다른 대상에게 스스로를 내어주고 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대상에 내어주게 되는가? 이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핵심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교통적 사랑 (self-communicating love)인데 이 사랑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자신과 동일한 존재인 성자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자를 통해서 다른 대상인 세계로 향하는 것을 가리킨다.[56] 이는 앞 단락에서 설명되었던 '무로부터 창조'가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라는 명제를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해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란 성자를 향한 그의 사랑에서 성부가 세계의 창조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가리킨다.[57]

---

53) Ibid., 106-7.

54) Ibid., 167-68.

55) Ibid., 172.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들은 공통적 신적 본질 속에 거하시므로 이 위격들은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를 성부와 성자 사이의 상호적 사랑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몰트만은 주장한다: "성부는 그의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전부가 성자 안에 존재하며, 성자는 그의 자기 포기로 그의 전부가 성부 안에 존재한다."

56) Ibid., 111-12.

57)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48: "...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을 통해 세계를 창조하며 유지하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성부의 자기 교통적 사랑을 받은 성자가 다시 성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성부로 하여금 다른 대상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를 개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몰트만은 설명한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성부의 성자에 대한 사랑에는 그의 세계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58]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성자에 대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은 세계의 창조를 떠나서 논의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성부가 로고스를 통해 만유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에 관한 기본적인 명제는 만유재신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59] 이는 이렇게 피조된 세계가 사실상 성자의 다른 측면에 해당됨을 가리킴과 동시에 성부가 이제 성자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됨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로고스는 창조의 중재자이며 이를 통해 그는 만유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은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 이해를 위한 전제로서 작용한다.

그렇다면 몰트만은 성부가 성령의 역사 (operation)를 통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명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명제는 성부가 자신의 영의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뜻한다.[60]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를 통한 창조는 그의 부어지심 (being poured out)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범신론적 용어인 유출 (emanation)과 혼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몰트만을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기에서 언급된 성령의 부어지심은 신플라톤주의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본질의 유출을 통한 세계의 창조가 아니라 단지 이 세계가 신격화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

58)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108.

59) Ibid., 108, 112.

60) Ibid., 113-14;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26: "성서의 전통에 의하면 모든 신적인 활동은 그의 활동에 있어서 영적이다. 비로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게 쉼없이 영을 불어 넣어준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우주적인 영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받음으로써 존재하고 산다. 그러므로 창조된 모든 현실은 에너지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신적인 영의 실현된 가능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는 에너지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또한 이는 성자가 성부에 의해 발생 (engendering) 되는 것과도 다르며 창조와 발생 사이의 중간적 차원에 해당된다고 밝히는데 이는 몰트만의 비성경적인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몰트만은 이러한 용어 해설의 차원을 넘어서서 살리는 영과 피조세계에 거하시는 영으로서의 성령을 통한 창조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 영의 능력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를 창조하였으며, 파괴하는 무에 대항하여 세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61]

3) 창조와 진화의 관계

몰트만의 창조론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창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행위 그 자체로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창조론은 창조자를 초월적 원인으로 파악하므로 창조를 태초의 행위에 국한시키는 경우이지만, 그의 창조론은 피조세계에 현존하시는 성령을 강조하는 창조론으로서 창조라는 과정에 초월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동반한다는 사고로 구성된다.[62] 그 결과 몰트만은 창조를 태초의 창조 (creatio originalis), 계속적 창조 (creatio continua) 또는 역사의 창조, 그리고 새로운 창조 (creatio nova) 또는 종말의 창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63] 첫째, 태초의 창조는 아무 전제도 없는 창조를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로 인한 창조이며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전능한 창조이므로 우연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무로부터

61)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49.
62) 버켐, 『몰트만의 신학』, 318-19.
63) 몰트만, 『과학과 지혜』, 66-77;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302-12; Moltmann, *The Future of Creation*, 119f.

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태초의 창조는 시간과 더불어 카오스와 죄를 극복해야 하는 차원을 지닌다. 둘째, 역사의 창조 또는 계속적 창조는 태초의 창조를 전제로 삼는 창조된 것에서의 창조이며 무의 파괴력에 대항하여 피조세계를 보존하고 또한 미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준비해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 창조는 새로운 창조를 앞당기는 혁신하는 행위로서 선취적 창조 (creatio anticipatio)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보존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활동은 구체적으로 물질과 삶의 체계들의 계속적 형성으로서의 진화를 가리킨다.[64] 셋째, 새로운 창조는 창조의 과정이 하나님의 거하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거하심이 충만한 상태로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충만히 영광 가운데 거하는 상태인데 이는 모든 삶의 체계들이 완전한 개방성을 지니게 되는 상태이며 이 체계들 사이에 완전한 교통을 제공한다. 이는 물질의 복잡한 구조들이 진화로 인해 그 행동의 미확정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창조에 대한 이 세 가지 구분은 창조가 하나님의 단회적 행위로 이루어진 폐쇄된 체계 (closed system)가 아니라 가능성과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개방된 체계 (open system)임을 보여준다.[65]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변화를 향해 열려있는 변화적 창조 (creatio mutabilis)임을 가리킨다. 창조는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앙 또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멸망 또는 최종적 완성 (consummation)에 이르게 된다. 태초의 창조는 하나

64)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288.

65) 몰트만, 『과학과 지혜』, 67, 각주 14 몰트만은 창조에 나타난 개방된 체계가 지닌 특징으로 다음의 4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이 체계는 변화를 위한 서로 다른 가능성을 지닌다. 둘째, 이 체계의 미래적 행동은 이전 행동들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이 체계는 다른 체계들과 교통할 수 있다. 넷째, 이 체계의 최종적 상태는 초기 상태와는 다르다.

님의 의지적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연성과 더불어 개방성을 지니고 있지만 계속적 창조는 무의 세력으로 인해 고난받고 그 결과 폐쇄되어 있는 체계들을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전자와 구분된다.[66] 달리 말하자면, 몰트만은 창조를 "바로 시간의 문제로부터 진화론과의 비판적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67]

그렇다면 창조와 진화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가?[68] 몰트만은 이 관계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성령론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면서 우주적 영의 활동원리를 제시함으로서 창조를 진화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69] 첫째, 성령은 창조성의 원리를 지닌다. 이 원리는 피조세계에서는 곧 진화의 원리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몰트만은 성령을 자연과학적 차원에서 해석하여 진화의 힘 또는 원동력으로 간주한다. 둘째, 성령은 전체론적 원리이다. 성령은 진화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성령은 피조세계의 상이한 물질들을 개체화시키고 분화시키는 원리로서 이는 진화론적으로 개체들의 자기주장과 통합, 자기 유지와 초월이라는 용어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몰트만이 자신의 창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전적으로 자연과학에서 수용되는 진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는 자연과학적 진화론에 나타난 몇 가지 요소들을 해석학적 차원에서 수용한다.[70] 첫째, 우주의 비가역성과 불균형적 체계, 그리고 자연법칙의 상대화로 나타나는 우연성과 유연성을 지닌 질서의 원리 등으로 대표되는 우주의 진화를 수용

66) 몰트만, 『과학과 지혜』, 76
67) 이정배, "메시야적 종말론과 진화론, " 135.
68) 버캠, 『몰트만의 신학』, 316-21.
69)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55. 이정배는 몰트만이 주장하는 우주적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배, "메시야적 종말론과 진화론, " 131, 144-45
70)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290ff.

한다. 둘째, 미래의 미결정성과 그 가능성의 확장, 개체의 증가된 변화력과 적응력, 부분에서 전체로 확장되는 조직의 원리 등으로 대표되는 생명의 진화를 수용한다.

이러한 진화론의 일반적이며 대표적 측면들이 수용되는 반면에 이데올로기화된 진화론의 단면들은 전적으로 거부된다.[71] 여기에서 이데올로기화된 진화론의 예로서 언급된 것은 다윈의 '생존을 위한 투쟁', '가장 강한 자의 생존'과 '적응하지 못한 자들의 도태'에 관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에 나타난 부정적 차원들은 진화의 목적이 인간 중심적으로 설정되거나 자연이 단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72] 이러한 파괴적 진화론 대신에 러시아의 동물학자 칼 케슬러 (Karl Kessler)와 페터 크로포트킨 (Peter Kropotkin)이 내세웠던 동물과 인간 상호간에 도움과 조화에 근거한 진화의 법칙이 옹호된다. 몰트만은 하나님 중심적인 창조 이해에 근거하여 기존의 과학적 진화론이 지닌 부정적 요소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다양한 진화론들이 종합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해석학적 진화론 또는 종합적 진화론을 주장한다.[73]

Ⅳ. 몰트만의 섭리 이해

몰트만의 섭리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창조론에 종속된 섭리에 대한 견해이며, 둘째는 섭리에 대한 진화론적 이해와 비판이며,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관점을 통해 살펴 본 섭리를 들

71) Ibid., 280-89.
72) 버캠, 『몰트만의 신학』, 320.
73)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290.

수 있다.

1) 창조론에 종속된 섭리 이해

몰트만은 진화론의 등장으로 인해 기독교 신학에서 섭리론이 간과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74] 계속적 창조가 진화의 관점에서 파악될 때 하나님의 일반적 협력 (concursus Dei generale)은 신학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하나님의 협력은 물질세계의 보존과 미래적 차원으로서의 세계의 완성을 향한 준비를 포괄한다. 보존은 태초의 창조를 전제로 삼고 과거에 피조된 세계의 계속적 유지 또는 보존을 의미한다.[75] 몰트만이 주장하는 섭리로서의 보존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되어 왔던 '인내 (patience)'가 활용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하느님은 그의 피조물들에 대해 인내하기 때문에 또 인내하는 한 그의 창조를 사멸에서 보호한다."[76] 또한 이는 삼위일체론적 이해에 근거해서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의 고난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하나님의 고난은 우선적으로 그의 영원한 본성에 속한 것인데 이는 역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체화된다.[77] 섭리는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통해 피조세계는 파괴되지 않고 유지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현재는 영원한 삶을 창조에게 주며 창조를 파괴하지 않는다."[78] 이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성령론적 표현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다: "하느님은 그 자신의 존재의 임재를 통하여 그 자신의

---

74) Ibid., 303ff.

75) 몰트만은 시 104:30을 언급하면서 이를 삼위일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Ibid., 149: "... 이 영의 능력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파괴하는 무에 대항하여 세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76)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406.

77)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45.

78)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42.

창조의 운명에 참여한다. 그는 영을 통하여 그의 피조물들의 고난을 함께 당한다. 그의 영 속에서 그는 파멸들을 경험한다. 그의 영 속에서 그는 노예 상태에 있는 피조물과 함께 구원과 자유를 향해 신음한다."[79] 계속된 창조와 관련된 고난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수고가 동반되며 여기에서부터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구원이 일어난다.[80]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regnum gratiae)로 묘사되기도 한다.[81] 몰트만에게 섭리는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차원에서 협력의 사역과 관계되는 것으로 주장되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이해된 협력과는 다른 섭리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고통성 (impassability)의 속성이 곧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몰트만이 무고통성을 단지 헬라 철학에 근거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거부한 것은 그가 이를 피조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에 반응할 수 없는 속성으로 혼돈함에서 비롯된 것이다.[82]

그렇다면 몰트만에게 고난을 통한 보존의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동반 또는 협력 (concursus Dei)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섭리에 있어서 보존과 협력이 동일시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만유재신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느님은 피조물의 활동 '안에서' 또 그것을 통하여 활동한다. 하느님은 피조물의 활동과 '함께' 또 그것으로'부터' 활동한다."[83] 그러나 몰트만이 보존과 협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빙크 (Herman Bavinck)가 양자를 동일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바빙크는

79) Ibid., 150.
80) Ibid., 141;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406.
81)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400.
82)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21;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Grand Rapids: Zondervan, 2011), 245, note 53.
83)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308.

창조론 이후의 모든 사역을 섭리론으로 이해하고 이를 하나님의 외적 사역으로 간주한다.[84] 그러나 몰트만에게 보존과 협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의 내적 사역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에서 그에게 동반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intervention)이 아니라 그가 피조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로서 그가 이와 함께 활동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85] 몰트만의 만유재신론적 사고는 창조와 섭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으로 파악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전통적 의미의 그것과 분명히 구분된다. 또한 몰트만이 주장하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동반 사역은 하나님의 외부적 간섭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의 만유재신론은 사실상 범신론으로부터 구분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다.[86]

여기에서 몰트만의 섭리 이해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창조론과 구별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에 포함되어 종속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보존, 협력, 그리고 통치, 은혜의 왕국 등과 같은 섭리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지만 이들의 의미는 전적으로 창조의 차원에 국한되거나 그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 머무른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는 그의 과정신학과 범신론의 창조 이해에 대한 비판에서 잘 드러난다. 그에게 과정신학의 창조론은 "사건의 흐름들을 포괄적으로 질서있게 하는" 행위와 동일시된다.[87] 이 점에 있어서 무로부터 창조를 부인하고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를 인정한 결과 이를 단순히 질서 부여라는

84)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51-52.

85)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308.

86) Gunton, *The Triune Creator*, 142; Tae Wha Yoo, *The Spirit of Liberation: Jürgen Moltmann's Trinitarian Pneumatology* (Zoetermeer: Meinema, 2003), 207-9. 침춤의 역전으로서의 창조를 주장하는 몰트만의 만유재신론은 위험할 정도 범신론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Cooper, *Panentheism*, 257, note 68.

87)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24.

섭리의 차원으로 대체시켜 버린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슐라이어마허의 주장에 나타난 범신론적 사고는 이와 정반대로 창조가 세계에 대한 유지로 폐기되어 버린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적 통치만이 남는 경우이다.[88] 따라서 과정신학은 창조론을 대신할 섭리론을 찾아 이를 창조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는 반면에 범신론에는 창조의 개념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단지 유지라는 차원만 남게 된다. 그러나 몰트만은 자신의 삼위일체론적 만유재신론을 통해, 섭리를 창조에 종속시키는 가운데 범신론과 과정신학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극복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믿는다.[89]

2) 섭리에 대한 진화론적 이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몰트만에게 계속적 창조는 탈이데올로기화된 진화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존과 세계의 완성을 위한 활동들은 미래를 향해서 개방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물질과 삶의 체계에 대한 계속적이면서도 새로운 형성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90]

여기에서 계속성이란 진화의 형성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리키는데 이는 보존과 관계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연법칙에 나타난 자연의 회귀나 반복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대적 폐쇄성을 통해 물질의 기본적 구조가 유지됨을 뜻한다.[91] 상대적 폐쇄성을 통해서 물질계의 생존에 필요한 안정이 보장되고 이는 또한 진화의 한 요소로서의 질적인 비약을 통한 새로운 형성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진화에 나타난 불연속성에 해당된다. 물질계는 상대적 폐쇄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의 원리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부분 (part)에 근거한 새로운 전체

88) Ibid., 125.
89) Ibid., 151.
90) III. 3)을 참고할 것.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288.
91) Ibid., 298.

(whole)가 형성된다 (예, 원자에서 세포로, 세포에서 유기체로의 조직화와 비약을 들 수 있다.)

진화에 대한 이러한 몰트만의 고찰에 나타난 특징은 이를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다.[92] 새로운 조직, 세포, 개체 등의 등장은 앞서 언급된 새로운 창조의 차원에서 이해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선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화는 개방된 체계이며 복잡성의 증가와 상호교통을 통해 물질로 하여금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며 여기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진화의 기회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에서 비롯된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닫힌 체계의 개방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 체계들이 새로운 체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이끈다.[93] 따라서 진화는 피조물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참여와 이에 대한 동반이라는 점에 있어서 섭리와 관련된다. 몰트만의 주장처럼 섭리가 계속적 창조의 차원에서 창조론에 종속된다면, 새로운 개체, 또는 물질적 체계의 창조를 말하는 진화가 가능한 것은 그가 계속적 창조의 개념을 보존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혁신적 행위를 첨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몰트만은 여기에서 보존과 혁신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양자를 실질적으로 동일시한다: "그러나 모든 보존하는 행위는 사실상 혁신적이고, 모든 혁신하는 행위는 보존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섭리론이 사실상 창조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창조가 태초, 계속적 그리고 새로운 창조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진화는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를 앞당기고 이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혁신에 해당된다고 이해된다.[94]

그러나 여기에서 몰트만이 간과한 것은 혁신의 개념이 어떤 차원에서

92)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406-7.
93)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307.
94) Ibid., 306.

보존과 상충되지 아니하는가의 문제이다. 다윈적 진화론은 전자가 후자와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고 후자를 자연선택과 도태라는 개념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포기했다. 그러나 몰트만은 칼 라너 (Karl Rahner)의 진화에 대한 자기 초월의 개념을 도입하여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95] 이 점에 있어서 적어도 몰트만의 진화 개념은 더 이상 일반적 의미에서의 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와 역행하는 구원의 활동을 가리키며 이는 종말론적 개념에 해당되는데 이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사역에 해당된다.[96]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몰트만이 주장하는 진화란 기존의 다윈적 진화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며 자신이 주장하는 종말론적 희망에서 비롯되는 구원을 우주론적 지평에서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보존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섭리의 개념은 새로운 창조의 종말론적 개념에 의해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 생태학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섭리 이해

몰트만의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은 '생태학적 창조론'이라는 부제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The Trinity and the Kingdom*)』에서 제시된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상응하는 창조론이 의도되었는데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상호 사귐이 있는 삶을 가리킨다.[97] 그러나 인간은 자연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자연을 착취하고 고갈시키는 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생태학적 위기에 해당된다.

몰트만은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의 원인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지배에서 찾으며 이 위기는 곧 통치의 위기라고 정의한다.[98] 이러한 통치의

95)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414-19.
96) Ibid., 422.
97)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5, 18.

위기는 신학적으로 살펴볼 때 먼저 창 1:26에 나타난 '지배'의 개념을 인간이 자연에 대해 행사하는 통치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나타난 지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 사역에 상응하는 인간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 지배는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지배로 이해되어야 한다.[99] 몰트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로 만들고 이를 훼손하고 고갈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신학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된 자연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다.[100]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몰트만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즉 보존 사역에 상응하는 인간의 임무로서 '통치 (governance)'를 주장한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연을 착취하고 고갈시키려는 행위들은 '통치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러한 위기에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곧 몰트만에게 자연에 대한 올바른 통치에 해당된다.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 행위에 상응하는 인간의 통치는 곧 이 하나님의 행위를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차원에서 그가 주장하는 통치란 비록 인간의 행위이지만 보존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행위를 인간이 대행하는 차원을 지닌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보존 행위는 주인으로서의 행위이며 인간의 통치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충실하게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 "세계가 하느님의 창조라면 그것은 하느님의 소유이고 ... 하느님이 빌려준 것으로서 인간이 받을 수 있고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101]

98) Ibid., 44ff.
99) Ibid., 54.
100) Ibid., 17-18.
101) Ibid., 56.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행위로서의 보존을 대행하는 것이며 이는 자연을 소유한다는 차원에서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되어 전체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평화의 지배이며 사귐의 지식을 동반한다.[102] 통치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인간 중심적 세계관 대신에 자연과 조화된다는 통합과 전체적 세계관을 대변한다.

몰트만의 통치 개념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방에 해당된다. 비록 섭리를 가리키는 '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고갈시켜서 위기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이와 더불어 조화되는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몰트만의 섭리 이해는 사실상 섭리를 자연과 조화되는 통합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103]

V. 맺는 말: 개혁신학적 비판

여기에서는 몰트만의 창조와 진화 이해에 나타난 섭리 개념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104]

첫째,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개념은

---

102) Ibid., 58.

103) Manuel G. Doncel, S.J., "The Kenosis of the Creator and of the Created Co-Creator, " *Zygon* 39 (2004), 796f.

104) 다음을 참고할 것. 그렌츠 & 올슨, 『20세기 신학』, 298-99.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주의에서 빌려온 것으로서 사실상 성경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몰트만이 내세우는 '무'의 개념은 완전한 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간주되므로 그가 주장하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 성경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섭리는 창조에 종속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과 바빙크를 위시한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와 연속성과 더불어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여기에서 연속성이란 섭리가 창조를 전제로 삼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불연속성이란 섭리가 창조와는 구분되는 개념임을 가리킨다. 몰트만은 창조를 태초의 창조, 계속적 창조, 그리고 새로운 창조로 나누는데 이 구분에서 섭리를 계속적 창조로 이해하여 창조라는 큰 테두리 속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진화와 관련한 몰트만의 주장에 나타난 장점은 그가 다윈주의적 진화론에 나타난 생명체의 도태라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올바로 수정하는 관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계속적 창조를 보존과 혁신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섭리에 대한 진화의 관점이 도입된다. 섭리에 대한 진화론적 이해는 물질계가 개방된 체계임을 부각시킨 점에 있어서 보존이라는 관점이 진화에 도입되어야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올바르게 강조되었다. 몰트만의 견해는 혁신이라는 개념에 정통적 의미에서의 섭리의 개념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이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넷째, 생태학적 위기는 통치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적 세계관 보다는 통합적이며 전체적 세계관이 강조된다. 몰트만은 생태학적 창조론을 통해 인류가 처한 환경적 위기를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신학에 나타난 현실성과 적실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생태학적 창조론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보다 통치를 인간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조화를 내세움으로서 기존의 전통신학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이를 제기하는 차원에 머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몰트만의 창조와 진화 이해에 나타난 섭리론은 위의 네 가지 차원에서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성경적 가르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몰트만이 개혁신학에서 출발하고 이를 추구했던 신학자임을 상기시킬 때 그의 신학적 행보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Cooper, John W., *Panentheism: The Other God of the Philosopher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Doncel, Manuel G. S.J., "The Kenosis of the Creator and of the Created Co-Creator, " *Zygon* 39 (2004), 791-800.

Gunton, Colin E., *The Triune Creator: A Historical and Systematic Study,* Grand Rapids: Eerdmans, 1998.

Horton, Michael,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Grand Rapids: Zondervan, 2011.

Moltmann, Jürge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he Doctrine of God*,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1993.

_____ . *The Coming of God: Christian Eschatology*,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1996.

_____ . *The Future of Creation: Collected Essays*,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2007.

Peacocke, Arthur, *Creation and the World of Science: The Reshaping of Belief*, Oxford/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4.

Torrance, Alan J., "Creatio ex nihilo and the Spatio-Temporal Dimens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Jürgen Moltmann and D. C. Williams, " in *The Doctrine of Creation: Essays in Dogmatics, History and Philosophy*, ed. Colin E. Gunton, Edinburgh: T & T Clark, 1997, 82-103.

Yoo, Tae Wha, *The Spirit of Liberation: Jürgen Moltmann's Trinitarian Pneumatology,* Zoetermeer: Meinema, 2003.

그렌츠, 스탠리 & 로저 올슨, 『20세기 신학』, 신재구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7.

몰트만, 위르겐, 『희망의 신학』, 전경연 · 박봉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_____ .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기독교 신학의 근거와 비판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 김균진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_____ .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야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김균진 김명용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_____ . 『생명의 영: 총체적 성령론』,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_____ . 『과학과 지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3.

_____ .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김균진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바빙크, 헤르만, 『개혁교의학 2』, 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버캠, 리처드, 『몰트만의 신학: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의 신학여정』, 김도훈 · 김정형 공역, 서울: 크리스챤헤럴드, 2008.

이정배, “메시야적 종말론과 진화론; 몰트만의 자연신학 연구, “「조직신학논총」 12 (2005), 117-46.

현요한, “몰트만의 성령론, ”「조직신학논총」 12 (2005), 197-218.